



5.

# Come Hell or High Water

by Michael Pinsky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by 마이클 핀스키

## Come Hell or High Water

홍수가 지나간 도시의 재해 현장이 아니다. 강 한복판에 줄지어 잠겨 있는 차들은 분명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미 절반이 물 속에 잠겨 옴짝달싹할 수 없어 보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차들. 저 명랑한 색깔들을 보니 지금이라도 당장 구하러 가야만 할 것 같다. 이 작품은 영국 북부의 타인강 일대에 설치되어 6주간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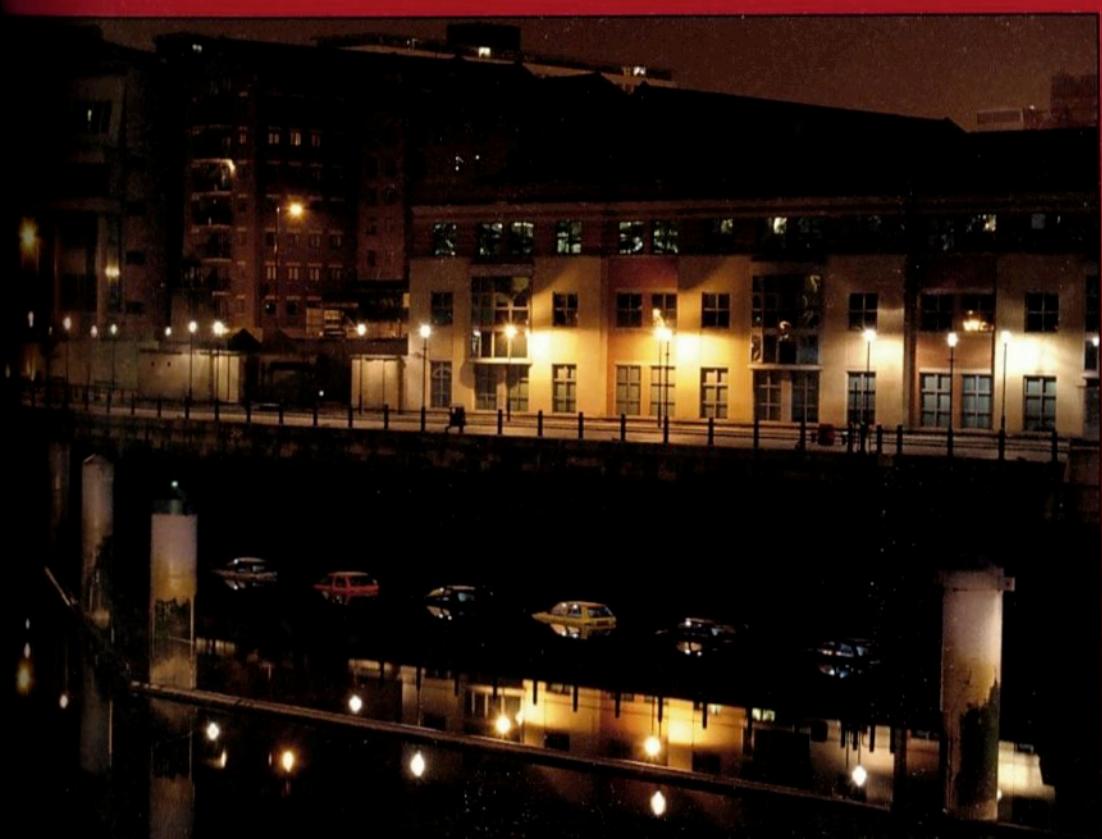
작품의 제목 'Come Hell or High Water'는 원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론 이렇게 높아진 수면이 우리를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상기시킨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비주얼 아티스트 마이클 핀스키는 영상, 퍼포먼스, 매펍, 조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을 통해 사회문제에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자동차가 촉발한 도시문제, 대기오염 등의 이슈를 다른 설치 작품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66

# 지옥에 가기 전 뭐라도 할 수 있다면

99



©Michael Pinsky

## 마이클 핀스키

MICHAEL PINSKY

‘Come Hell or High Water’를 설치한 지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의 생각이 궁금해요. 처음 이 작품을 설치할 때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당장 내 집이 물에 잠기고 있는 걸 눈앞에서 본다면 누구라도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절박한 위기감, 그리고 그로부터 생기는 강한 행동을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요새는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후 위기나 환경, 사회문제를 다루지만 당시에는 이런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환경문제는 정치와 떼놓을 수 없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당시에는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이 작품이 말하는 현실은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봐요.

많은 작품에서 ‘자동차’가 주요 모티브로 등장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자동차가 도시에 초래한 변화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는 언제든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죠. 또 대부분의 차는 달리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긴데요, 그 수많은 차를 주차하느라 도시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요. 게다가 내연기관차가 내뿜는 매연은 대기오염 등 환경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이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단순히 전기차로 이동하는 것은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기술적 통합이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교통수단이 만들어내는 오염이 상당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동은 필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차를 소유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 둘을 학교에 데려다줄 때도 걸어 다니고 쇼핑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죠. 도시를 이동할 일이 있을 때는 버스나 기차를 타면 돼요. 물론 먼 대륙을 가야 할 때는 비행기를 이용하죠. 하지만 자동차 같은 모빌리티는 꼭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모빌리티의 미래는 훨씬 다양해지겠죠. 전기차, 전기 바이크, 세그웨이 같은 점점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가 개발되고 있는데, 정작 도로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둘러싸고 도로 점유나 이동 방식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공간 활용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모빌리티 이용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공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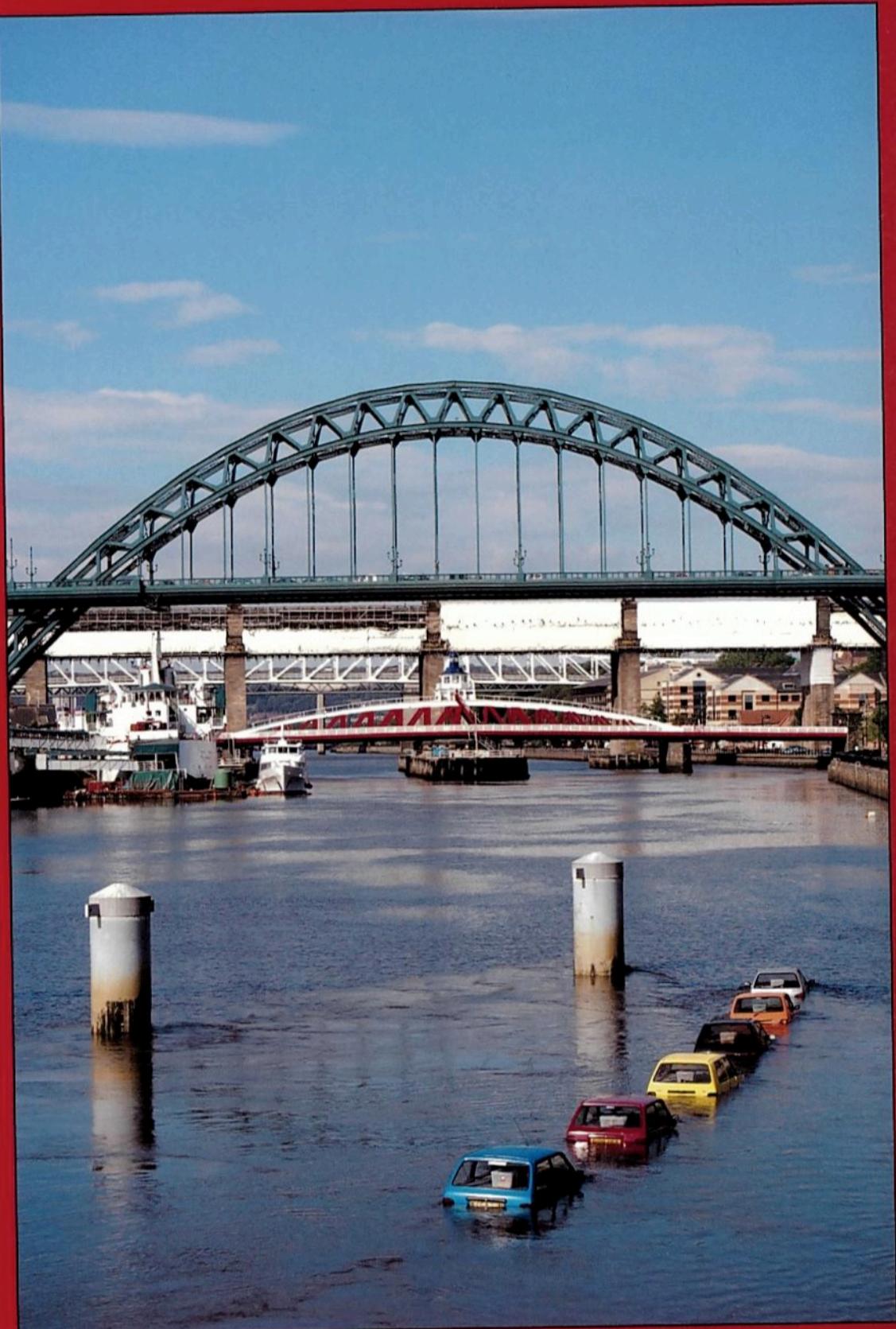


작품에 여러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세계는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어요. 보통 물건을 살 때 그 구매 비용만 생각하고 물건이 쓰임을 다하고 난 뒤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싸고 쉬우니까요.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큰 배에 실려 인도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 땅 또는 바닷가에 쌓이죠. 쓰레기가 만드는 환경오염은 전 지구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연결되어 있죠. 저는 우리가 조금의 불편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더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끝내주게 멋진 차를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성장에 매몰되어 다른 가치에 주목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구를 망치고 말 거예요. 더군다나 지구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소유한 소수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나라 몫이죠.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런던에서 차를 소유한 사람은 30%뿐이지만 그 차로 인해 도시가 입는 피해는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요. 오히려 걸어 다녀야만 하는 사람들한테 더 큰 피해가 갈 겁니다. 더 넓은 층위에서 보면 다국적 회사에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Pollution Pods

이미 오염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나쁜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활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진짜 깨끗한 공기를 경험해보기 전까진 말이다. 마이클 펀스키의 이 설치 작품은 5개의 둥을 내부에서 연결시킨 것으로, 각각 인도 뉴델리, 영국 런던, 브라질 상파울루, 중국 베이징, 그리고 노르웨이 타우트라의 공기를 담고 있다. 노르웨이 기술과학대학과 4년간의 연구 협업을 거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를 비롯해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물질까지 그대로 재현했다.

둥 내부를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관람객은 세계 각국의 공기와 환경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매연과 각종 오염으로 희뿌연 베이징과 쓰레기를 태운 연기로 자욱한 뉴델리의 둥을 지나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타우트라의 맑은 공기를 들이켜는 순간까지, 단 몇 걸음 사이에 바뀌는 공기의 질 변화는 극적이다. 이 둥은 해체와 조립을 거듭하면서 세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닌다. 2019년에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를 맞아 유엔 본부 앞에 설치되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세계 지도자 및 기후 활동가들 사이에 대기오염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끌어냈다.

66

런던 한복판에서  
뉴델리와 베이징의  
매연을 들이마신다고?

99





### Symposium

마이클 핀스키가 보여주는 세계에서 자동차는 교통수단 위계의 가장 아래에 자리한다. 자동차는 강을 건너가기 위한 다리에서 보트에 우선권을 내주어야 한다. 이미 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다리가 반으로 나뉘어 열림에 따라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두 동강이 난 자동차는 보트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원상태를 회복한다. 그렇다면 이 다리 위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두 다리로 걸는 보행자다. 이처럼 마이클 핀스키가 새롭게 정의한 교통수단의 위계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66

# 교통수단에도 위계 서열이 있다면

99

### Breaking the Surface

영국의 항구도시 브리지워터 부두가 어느 날 갤러리로 바뀌었다. 심해에 버려진 물건을 걷어내 미술관 속 작품처럼 전시한 것. 펁 조명과 푸른색의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물건도 왜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한다. 일렁이는 물결에 비치는 환상은 잠시 우리를 감상에 빠지게 하지만, 수면 위에서의 전시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쓰임을 다한 물건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더라도 그건 다른 어딘가로 이동할 뿐 정말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66

# 쓰임을 다한 물건은 어디로 갈까?

99

